



강정진 과장/ 공인회계사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금융상품도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K-IFRS에서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금융보증계약은 통상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최초 인식

공정가치\*로 인식

\*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당해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동일할 것임.

### 후속 측정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함\*.

- (1)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2) 최초인식 금액에서 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금융보증계약은 일종의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그 보증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최초 인식액에서 누적 수익인식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기준서 제1037호에 의해 측정된 총당부채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이러한 총당부채 금액으로 후속측정함.

예를 들어 A사가 2011년 1월 1일, B사의 차입금 100,000원을 3년간 보증하는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A사는 2011년 중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 단 계          | 회계처리       |       |            |       |
|--------------|------------|-------|------------|-------|
| 2011. 1. 1   | (차) 현금     | 6,000 | (대) 금융보증부채 | 6,000 |
| 2011. 12. 31 | (차) 금융보증부채 | 2,000 | (대) 보증수익   | 2,000 |

상기 보증수익 2,000원은 금융보증부채 6,000원을 지급보증기간인 3년 동안 균등하게 수익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만일, 2012년 1월 1일에 B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대신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이 80,000원

이 될 것으로 추정될 경우 A사는 2012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단 계        | 회계처리     |         |            |         |
|------------|----------|---------|------------|---------|
| 2012. 1. 1 | (차) 보증손실 | 76,000원 | (대) 금융보증부채 | 76,000원 |

\*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이 됨.

- ①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총당부채로 계상해야 할 금액 = 80,000원
- ② 최초 인식액에서 수익인식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6,000원 - 2,000원 = 4,000원  
따라서 A사는 76,000원(80,000원 - 4,000원)을 부채로 추가로 계상해야 함.

위 사례에서처럼 수령한 보증수수료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치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계열회사간의 지급보증이나 PF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의 수수가 없거나 공정가치와 다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의 수수가 없는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관찰가능하며 비교가능한 제3자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정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급보증을 받는 회사의 수수료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보증을 제공받는 회사가 독립적인 보증보험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다면 지급했을 보증수수료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보증보험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이 없다면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 금융보증을 제공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로 금융보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회사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금융보증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받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회사의 신용등급보다 낮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제공받는 회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셋째,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기업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의 가치는 감소한 만큼의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없었을 경우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과 미래 지급할 이자비용의 차이의 현재가치를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넷째,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측정되는 금융보증부채의 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다. 금융보증부채뿐만 아니라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기법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최종 측정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보증계약이 연결그룹 내의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증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그룹의 별도재무제표에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은 미수금이나 현금일 수 없으며, 그 실질에 따라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